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1 No.4 Serial No.93 _ 2012. 08

성 이냐시오 채플에 나타난 현상학적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 Ignatius Chapel by Steven Holl

Author 김준성 Kim, Jun-Sung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정태용 Chung, Tae-Yong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s in Steven Holl's architecture through his design of St. Ignatius Chapel at Seattle University. To obtain this purpose, an analytical frame based on Holl's theory of phenomenological architecture is suggested to have a systematic study for St. Ignatius chapel. This chapel can be a good example of phenomenological architecture in that it is based on the concept of 'A Gathering of Different Lights' related to phenomenology and considered perception including multi sensory (as well as vision) as primary factors from site and program interpretation to spatial configuration. Unprecedented exterior of St. Ignatius chapel reflected on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rooms to magnify user's spatial experiences through inducing natural light and spatial effect. Holl used various openings and screen for natural light with colors to invoke religious inspiration. He also try to give spatial depth and multi foci for experiencing space through various ceiling forms. These phenomenological features originated in client's strong will as well as appropriateness of the function of facility's religious experiences through building to the purpose of phenomenological architecture.

Keywords 성 이냐시오 채플, 현상학적 건축, 다감각
St. Ignatius Chapel, Phenomenological Architecture, Multi-sensory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해체주의 철학과 건축의 만남은 랜드스케이프 건축, 폴딩 건축, 다이어그램의 강조 등 현대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기여했다.[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 이론의 무리한 건축적 적용과 관념적 측면의 강조로 인하여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해체주의적 접근과 비교하여 건축의 경험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법이 현상학적 접근이다.[2] 건축에 있어서 현상학적 접근 방식이 갖는 의의는 건축 고유의 감각적이며 체험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존재와 경험'이라는 건축의 본질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실무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겠다.

비록 현대 건축의 주류는 아닐지라도 다수의 유명 건축가들의 작업[3]에서 엿보이는 이러한 경향은 특히 스티븐 홀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데,[4] 이는 스티븐 홀이 현상학을 건축 작업의 주요 이론으로 삼고 이에 대한 논리를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에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현상학적 건축에 대한 논의는 주로 스티븐 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5]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현상학 이론 중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taeyong@konkuk.ac.kr
** 이 논문은 2011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특히, 데리다, 들뢰즈의 여러 개념이 건축에 적용되었다.
2) 근대건축에 대한 비판으로서 도입된 건축의 현상학적 접근은 직교좌표 중심의 데카르트적 기하학에 반발하여 곡면과 사선, 다양한 공간배치, 빛과 공간의 체험을 중시한다.
3) 스티븐 홀, 안도 타다오, 피터 줌터, 알바로 시자 등을 들 수 있다.
4) '그의 건축은 우연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서 홀은 건물이 시와 같이 형태, 은유, 상징, 구조의 다양한 레벨에서 읽히도록 디자인한다.' M. Hinshaw, Architecture, http://www.stevenholl.com/project
5) 스티븐 홀에 대한 기존 국내연구로서는, 홍덕기・구영민,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시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1.05, 김영희, 스티븐 홀의 스트레토 하우스에서 베르그송의 지속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02, 김광배, 현상학이 건축이론에 미친 영양과 현상학적 설계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12, 길성호, 현대 건축가의 신체 담론에 나타난 공간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04., 안우진・손광호・고성룡, 스티븐 홀 작품에 나타난 현상

의 포괄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구체적인 작품 분석은 아직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시애틀 대학의 성 이냐시오 채플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접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물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루려고 한다. 연구의 대상 건물은 경건함과 체험을 중시하는 종교 건축이라는 점과 스티븐 홀이 자신의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개념단계부터 실현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강조한 작품[6]이라는 점에서 그의 현상학적 건축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성 이냐시오 채플 통하여 홀이 주장하는 건축의 현상학적 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연구과정 상에서 스티븐 홀이 주장하는 현상학적 건축 이론의 파악 역시 연구의 또 다른 목적으로 삼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성 이냐시오 채플 즉 단일 건물이지만, 성 이냐시오 채플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작업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연구 범위에는 채플 이전 작업으로서 영향을 미친 것 및 이후 작업으로서 영향을 받은 작업까지가 포함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현상학에 대한 주요 건축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하여 그 전반적 흐름을 살펴보고, 스티븐 홀의 건축적 현상학에 관련된 저작물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들을 토대로 성 이냐시오 채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위한 틀을 작성한다. 이후 작성된 분석틀을 이용하여 성 이냐시오 채플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스티븐 홀의 이론과 논리가 어떻게 건축화되었는가를 실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더 나아가 적용을 통해 나타난 결과의 성격과 의의를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성 이냐시오 채플에 관련된 문헌, 도면, 현장답사 사진을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하고 분석 결과는 다이어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리한다.

2. 성 이냐시오 채플의 분석틀

2.1. 현상학적 건축에 대한 논의

(1) 주요 건축 현상학자들의 논의

기존 연구와 같이 메를로-퐁티 등 현상학자의 이론을 건축물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철학 내용에 충실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이 경우 발생하는 양 분야의 '차이'에 대한 고려를 찾기는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의 현상학 논의뿐만 아니라 건축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건축이론으로서의 현상학적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7]

슐쯔(Christian Norberg-Schulz, 1926 - 2000)는 현상학을 건축에 도입하고 이를 이론화한 초기 세대로서, 1970년대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 즉 모더니즘 건축에서 사라진 지역의 아이덴터티와 장소 개념을 재도입하여 '장소' 중심의 건축으로 회귀해야함을 주장했다.

페레즈-고메즈(Alberto Perez-Gomez, 1946-)는 이른바 에섹스 학파[8]의 일원으로서 건축과 철학의 연계를 중시하였는데, 일련의 책과 논문을 통하여 건축의 경험, 시적 차원 등 건축에 있어 현상학적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팔라스마(Juhani Pallasmaa, 1936-)는 여러 권의 저작물과 건축 작업을 통하여 경험 대상으로서의 건축을 강조했는데, 이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등 여러 감각들을 고려한 '다감각(multi-sensory) 건축'[9]을 통해 진정한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오테로-파일로스(Jorge Otero-Pailos, 1971-)는 가장 최근의 논의에서 현상학적 건축이론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건축의 지각적 효과에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10]

<표 1> 현상학적 건축 이론가의 저서 및 내용

저자명	주요 저서 및 내용
Norberg Schult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1971), Genius Loci(1991), 건축의 본질, 건축의 의미와 독장성에 관련된 장소의 중요성 강조
Juhani Pallasmaa	Questions of Perception(1994), The Eyes of the Skin(1995), The Thinking Hand(2009), 시각적 측면 이외의 건축에서의 다감각적 지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강조
Perez Gomes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1985), Questions of Perception(1994), 건축의 경험 및 시적 차원의 건축 강조
Otero Pailos	Architecture's Historical Turn: Phenomenology and the rise of Postmodern (2010) 건축의 지각적 측면에 있어서 건축현상학의 중요성및 한계 지적

(2)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논의[11]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홀 특유의 건축적 사고에 배경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건물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는 전적으로 홀 자신이 해결해야할 문제였다. 홀은 자신의 작업과 건축적 사고를 기간별로 정리하여 책

학적 빛과 물의 공간작용,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1.06, 김명옥, 스티븐 홀의 감성적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03 등을 들 수 있다.

6) 프로젝트 의뢰를 위한 인터뷰 중에, 건축 현상학을 설명한 "Questions of Perception"으로 명명한 강의에서 우리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Steven Holl, The Chapel of St. Ignatiu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p.14

7) 물론, 이 경우에는 현상학의 내용이 건축에 제대로 연결되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영국 에섹스 대학의 Dalibor Vesely, Joseph Rykwert의 영향을 받은 Leatherbarrow, Perez-Gomez, Libeskind 등을 일컫는다.

9) "건축의 경험은 다감각적이다; 재료의 성질, 공간과 스케일은 눈, 귀. 코, 피부, 혀, 뼈, 근육 등으로 동등하게 측정된다. 건축은 세상에서의 존재 감각을 강화한다. 필수적으로 강화된 자신 경험을 만들어낸다."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1996, p.28

10) Otero-Pailos, Architecture's Historical Turn: Phenomenology and the Rise of Postmodern, Univ. of Minnesota Press, 2010, p.261

11)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스티븐 홀 건축과의 관계는 별도의 연구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으로 펴냈는데 여기에는 그의 현상학적 건축에 대한 생각과 그 전개과정이 잘 나타나있다.

'정박(Anchoring, 1989)'에서 홀은 '건축은 장소와 결합하고 상황 즉 대지의 의미를 집결시켜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12]고 규정하고, 시간과 문화, 프로그램, 대지로부터 형성된 '제한된 개념 내에서 재료와 빛 등을 통해서 현상적 체험의 공간을 조직할 것을 주장한다.[13] 홀이 메를로-퐁티의 현상학과 접한 것은 1984년으로서 이 책은 80년대 후반기 작업에서 이루어진 현상학적 접근을 담고 있다.

고메즈, 팔라스마와의 공저인 '지각의 의문(Questions of Perception, 1994)'에서는 자신의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즉 건축의 효과적 경험을 위해서는 시간의 통로인 빛, 그림자와 투명성, 색채 현상, 질감, 물성 및 디테일 모두가 필요함을 밝힌다. 스티븐 홀의 촉감과 빛, 음향, 심지어 향기에 대한 관심은 남다른 것으로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내용과 건축을 연결한다.[14] 그리하여 '건축만이 모든 지각의 복합체 즉 모든 감각을 동시에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다.'[15]고 주장한다.

1990년에서 1996년까지의 작업을 정리한 '상호 얽힘(Interwining, 1996)'에서 "건축은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이고 살아있는 상호 얽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건축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현상학은 본질의 연구에 관계한다. 건축은 본질을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잠재력을 지닌다."[16]고 주장했다. 또한, 메를로-퐁티의 저서 '지각의 현상학'에 근거하여 건축 인식의 주체로서 "신체" 개념을 건축에 도입[17]하고 이를 통한 감각적, 지각적 체험을 중시했다. 그 결과 자신의 건축 목적은 '건축을 사고의 레벨로 끌어올려 강력한 현상학적 성격의 공간 실현'이라고 밝힌다.[18]

'시차(Parallax, 2000)'에서는 기존의 유형학적, 현상학적 접근에 새로운 자극으로서 과학적 내용을 접목시켰다. 그의 건축적 사고는 이제 하나의 지속적인 흐름으로 프로젝트 안에 녹아 있어서,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에는 이론적 연구를 지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건축가와는 정반대의 방식을 보여준다.[19] 그러므로 "이 책은 건축에서의 정신, 과학에서의 발견, 그리고 서로간의 관계를 탐험하려는 노력과 지각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20]

12) Steven Holl, Interwining, 1989-1995, Princeton Press, 1996, p.9
13) Steven Holl, Anchoring, Princeton Press, 1991, pp.10-11
14) Richard Ingersoll, Steven Holl Architect in a Cabinet of Curiosities, C3, 2002, p.18
15) Steven Holl,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Question of Perception, Juani Pallasma and Alberto Gomez, A+U, 1994, p.41 또한, 이 책에서 처음으로 전경, 중경, 원경의 고려가 건축의 "완전한 지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 Steven Holl, Op. Cit., 1996, p.11
17) Francesco Garofalo, Steven Holl, Universe, 2003, p.9
18) Ibid., p.16
19) Francesco Garofalo, Op. Cit., 2003, p.9

<표 2> 스티븐 홀의 주요 저작물과 현상학적 건축의 내용

저서명	연도	주요 내용
Anchoring	1989	건축의 대지로의 정박을 통한 의미 생성, 현상학 적용
Questions of Perception	1994	현상학적 건축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및 적용된 건축사례의 제시
Interwinning	1996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근거한 감각적, 지각적 체험 중시 신체 중심의 현상학적 공간체험 시도
Parallax	2000	지속성 있는 현상학적 접근 시도, 지각과 과학의 발견 연결 고유의 현상학적 건축의 방법 제시

2.2. 현상학적 건축의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우선 설계 단계와 그 이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적용된 현상학적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즉, 설계 단계에서는 주로 건축 조건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을 고찰하며, 설계 이후 단계에서는 완공된 건물을 통한 신체 중심의 건축 경험을 다룬다. 건축조건의 해석 부분은 홀의 저서를 기반으로 대지와 프로그램에 대한 홀의 현상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예를 들어 대지 부분은 'Anchoring'과 'Interwining'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지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 도시적 위치와 의미에 대한 홀의 해석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으로서의 건물과 장(field)으로서의 대지와의 융합 및 그 장소적 의미를 살펴본다. 프로그램 부분은 'Questions of Perception'과 'Interwining'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상학적 측면의 건축 개념의 도출 및 각 기능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건축물의 현상학적 경험은 기본적으로 'Interwining'에서 홀이 밝힌 메를로-퐁티의 지각 주체로서의 신체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즉, 신체의 감각과 움직임으로 크게 나누어 고찰하는 것으로서, 신체 감각 측면은 빛과 색채의 효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시각 부분과 촉각, 소리 등 비시각적 부분으로, 신체의 움직임은 공간의 방향과 깊이 측면과 운동에 따른 시점의 변이 및 동선이 갖는 공간 경험의 측면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표 3> 현상학적 건축의 분석표

구분	내용	주요관련 사항
건축 조건의 해석	대지	얽혀진 경험: 대상과 장(field)의 융합 도시 속의 위치, 주변 환경과의 관계, 장소적 의미
	프로그램	현상학과 건축개념의 연계, 상호연결의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의 현상학적 해석
건축물의 경험	신체 감각	빛의 유입방법, 효과, 의미, 빛의 현상적 변화와 결합, 색채, 빛과 그림자, 밤의 공간성
		디테일 촉각적 영역, 음향, 현상적 렌즈로서의 물, 이미지에서 촉각 영역으로, 음영의 속도(빛의 압력)
	신체 움직임	원근법적 공간: 불완전한 지각, 다시점 제공, 공간의 방향과 깊이에 대한 현상학적 의미
		자율에서 상호작용으로, 신체 이동에 따른 시점의 변이, 연속적인 우회동선, 시간의 지속과 지각

20) Steven Holl, Parallax,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0, p.9

3. 성 이냐시오 채플의 현상학적 특성

3.1. 성 이냐시오 채플의 건축개요

(1) 건립배경

성 이냐시오 채플은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 시애틀 시내에 위치한 시애틀 대학의 브로드웨이와 매디신 가로 사이에 위치한다. 550㎡의 작은 규모를 갖는 이 건물은 제수이트 교단의 창립자인 성 이냐시오의 생애와 생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1년 당시 시애틀 대학 총장이었던 윌리엄 설리반 신부는 제수이트 파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영적 생활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대학 채플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21] 다른 한편으로 설리반 신부는 새로운 대학 채플이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 프랭크 게리의 EMP(Experimental Music Project)와 같이 기존의 시애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에 버금가는 건물이 되기를 원했다.[22]<그림 1> 대학채플 건립에는 40여개의 설계 사무소가 참여를 원했고 이들 중 4개 사가 선정되어 공개 강연을 했으며, 채플 건립위원회는 스티븐 홀을 최종 설계자로 결정하였다.

성 이냐시오 채플이 현상학적 특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우선, 체험과 감동을 중시하는 종교시설의 특성 상 경험 중심의 현상학적 접근이 무리 없게 적용될 수 있었다는 점과 스페이스 니들, EMP와 같이 시애틀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원한 총장의 의지와 물심 양면의 지원 그리고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으로의 강력한 실현 의지를 들 수 있다. 약 5년간의 설계 및 시공 과정을 거친 후, 성 이냐시오 채플은 1997년 4월 6일 봉헌되었다.

<표 4> 성 이냐시오채플의 건립과정

년도	주요 내용
1991	설리반 총장이 랜드마크가 될 채플 건립 계획을 공개함 성 이냐시오 채플 건립위원회 구성
1992	40여개 희망자 중 4명의 최종 참여자 선정, 공개강연 시행 스티븐 홀 선정, 성 이냐시오 연구를 위해 로마 여행
1995	4월 '서로 다른 빛의 모임'이라는 디자인 개념 공개 계획 설계안과 스케일 모델 공개
1997	4월 6일 봉헌

<그림 1> 시애틀의 랜드마크, 시애틀 미술관, 스페이스 니들, E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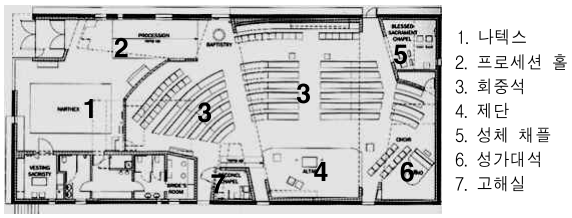
(2) 형태 구성

직사각형의 단순한 평면 형태와 달리 매우 다양한 지붕면을 갖는 성 이냐시오 채플은 낮은 직육면체 상자위에 놓인 매스로 보인다. 이러한 형상은 디자인 개념인 '돌 상자 위의 빛 병'을 건축형태로 구현한 결과이다. 6개의 돌출 매스로 구성된 지붕은 각각 내부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빛을 유입시킨다. 이러한 기발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슬랩 벽[23]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건물 위로 솟아오른 비정형의 천창의 형태를 취한다. 빛의 은유는 지붕 위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볼륨에서 형상화되는데, 지붕의 비정형성은 서로 다른 빛의 성질을 의도한 것이다. 이 때 모든 형상은 서로 모여 하나의 통합된 성스러운 장소를 만들어낸다.

<그림 2> 성 이냐시오채플의 외부 모습, 서측입면, 동측입면, 남측정면

(3) 내부 구성

성 이냐시오 채플은 외벽이 하중을 담당하여 내부에 기둥과 보가 없지만, 지붕의 다양한 형상은 그대로 천장으로 표현되어 다양한 내부공간을 보여준다. 입구로 들어오면, 램프로 구성된 프로세션 홀로 연결되고 우측에는 나텍스가 위치한다.[24]



<그림 3> 성 이냐시오채플의 평면과 주요 실(평면 좌측 남)

프로세션 홀의 서측 벽을 따라 진행하면 방문객은 성 이냐시오의 영적 훈련 4부분을 나타내는 4개의 창문[25]을 지나, 세례대[26]에 다다른다. 북서측 단부에 위치한 '성체 채플'은 독립공간으로서 계획되었다.[27] 동측에는 제단이

21) Steven Holl, Op. Cit., 1999, p.14

22) Gerald T. Cobbs, Introduction: Scared Space in the Secular City, Steven Holl, The Chapel of St. Ignatiu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p.8

23) 현장 지면에서 타설된 후 조각그림처럼 맞물려 하루 만에 설치된 21개의 착색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24) 나텍스는 성 이냐시오에 영감을 받은 현대 예술로 치장되어 있다. 바닥은 홀이 다지인한 커다란 양털 러그가 깔려있는데, 성 이냐시오가 자신의 환상 중 경험했던 카르도너(Cardoner) 강을 나타낸다. 벽은 비타우(Dora N. Bittau)가 그린 5명의 성자로 장식되어 있다.

25) 4개의 창문은 각각 Conversion; God's Indwelling; Christ's Laboring; and Resurrection을 표현한다.

26) 프로세션 홀 끝에 위치하며, 벽에는 세례, 안수, 영적 치유에 사용되는 기름이 우아하게 디자인된 병에 담겨있다.

27) 백색의 벽은 밀랍으로 코팅되어있고 금박의 카톨릭 성자들로 장식되어 있다. 가구 및 설치물의 초점은 '마드로나 나무(Madrona tree)'로서 빛까지 뻗어있어서 생의 투쟁을 상징한다. 성체(성찬용 빵)는 실 가운데 오닉스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북측의 불투명 유리 창은 제수이트의 봉인 표시를 갖는데 이것 역시 홀이 디자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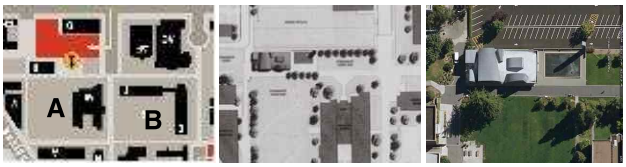
위치하고 우측에는 성가대석, 좌측에는 고해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각 실은 평면상에서는 단일 공간으로 보이지만, 각기 다른 높이와 공간 형상 그리고 빛을 통하여 각자의 독자성을 부여받는다.

3.2. 건축조건의 해석에 나타난 현상학적 특성

(1) 대지의 현상학적 해석과 배치로의 반영

홀은 부지의 현상학적 해석을 통하여 '읽혀진 경험'으로서 대지를 간주하여, 궁극적으로 건물과 장(field)의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28]

성 이냐시오 채플의 경우, 홀은 단계별 과정을 통하여 채플의 성스러움을 유지하도록 의도하였다. 우선 도심에 위치한 대학은 세속과 어느 정도 격리된 또 다른 장소를 제공한다.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대지는 남측으로 캠퍼스 주 진입로와 맞닿아있다. 홀은 채플을 북단에 위치시킴으로써 되도록 혼잡함을 피하려고 했다. 또한 주변 기존 건물과의 연계를 통한 쿼드랭글(Quadrangle)[29]을 조성하여 캠퍼스의 중심지가 되도록 계획했다.<그림 4>



<그림 4> 채플의 배치: A. 구 쿼드랭글, B. 신 쿼드랭글(좌측 북쪽)

남측 주 진입로에서 채플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잔디밭과 반사못을 지나서 입구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잔디밭 - 반사못 - 입구'로의 진행과정은 순례의 미묘한 경험을 제공한다. 즉, 시애틀의 도시 중심에서 성소에 이르는 단계별 노정을 대지 구성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내부와 외부, 세속과 성스러움, 있음과 없음간의 인공적 경계를 초월하는데 도움을 준다.[30] 그 결과 외부 연못과 잔디밭 영역은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채플을 열어 놓는다. 이렇듯 홀은 도시와 대학, 대학과 채플간의 현상학적 해석을 통하여 대지 내에 건물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잔디밭과 반사 못을 통하여 세속에서 신성한 장소로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채플을 이용하여 캠퍼스의 외부공간을 규정함으로써 건물과 대지, 주변대지와의 융합을 통한 장소를 만들었다.

(2) 프로그램의 현상학적 해석

홀은 1992년 성 이냐시오 채플 지명현상 과정에서 자신의 책 'Questions of Perception'과 동명의 공개 강의를 통하여 채플 계획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홀은 "성 이냐시오의 현상학적 가르침은 채플의 디자인 연구와 작업에 있어서 영감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했다."[31]고 밝히면서 1995년 4월 '서로 다른 빛의 모임(A Gathering of Different Lights)'라는 초기 디자인 개념을 제안했다. 이것은 제수이트 교단의 대학에 대한 2가지 중요한 사항을 종합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빛으로 사물을 보는 학생과 교직자를 불러 모은다는 대학의 선교 미션과, 실내의 빛과 어두움을 '위안(consolations)'과 '황량함(desolations)'이라고 불렀던 성 이냐시오의 영적 훈련을 참고한 것이다.[32] <그림 5> 상단 좌측 그림

<그림 5>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디자인 개념의 건축화 과정

이러한 초기 개념은 프로그램의 현상학적 해석을 통해 "돌 상자 안에 놓인 7개 빛의 병(seven bottles of light in a stone box)"으로 명명한 디자인개념으로 발전한다.

각각의 빛 병은 제수이트 교단의 예배 프로그램을 반영한 것이다. 첫 번째 빛 병은 프로세션(procession) 홀로서 마치 파도치는 돛과 같은 백색 빛에 충만한 높은 아치의 특성을 갖는다. 바닥의 경사는 완만하게 높아져 진입자는 좀 더 높은 곳으로의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빛 병은 복도 우측의 나텍스로서 의식 전후에 모이는 사람들을 위한 영역이다. 성 이냐시오의 영적 여행을 묘사하기 위해 홀이 직접 디자인한 카페트와 성 이냐시오의 생애를 묘사한 5개의 회화가 걸려있다.[33] 세 번째 빛 병은 예배를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주 성소로서 가장 크며 양 측단부에서 제단과 후면에 빛을 유입시킨다. 네 번째는 성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성가대석이고, 다섯 번째는 성체를 보관하는 성체함(tabernacle)을 위한 성체 채플이다. 여섯 번째는 회개자(penitent)와 고해자들이 신의 용서를 비는 고해실, 마지막 빛 병으로

28) Steven Holl, Anchoring, Princeton, 1991, pp.10-11,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장소적 의미를 찾는 작업은 지금은 당연한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건축 현상학자인 노베르그 슐츠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29) Steven Holl, Op. Cit., 1999, p.30, 일반적으로 미국대학들은 사각형 광장에 주요 건물을 두어 캠퍼스의 중심으로 삼고 이를 쿼드랭글이라 부른다.

30) Gerald T. Cobbs, Op. Cit., 1999, p.10

31) Steven Holl, Op. Cit., 1999, p.9

32) '영적 훈련(The Spiritual Exercise)는 1548년에 간행되었는데, 감각의 철학적 해석을 다루고 있다. 현상학의 내용을 300년이나 앞서는 이 작업은 5가지 감각의 위계를 재질서화한 것이다. 청각이 가장 세련된 감각이며 전통적으로 지배적 감각인 시각은 촉각이후 세 번째이다.' Ibid., p.14

33) 카페트와 그림은 성 이냐시오의 만레사에서 카르도너, 파리, 로마에 이르는 여행을 통한 영적 경로를 보여준다.

스티븐 홀은 순례나 성스러운 프로세션의 감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종탑으로 설정했다. 종탑은 기도와 명상을 위한 채플의 중요한 두 가지 확장 요소인 잔디밭과 반사 못으로 둘러져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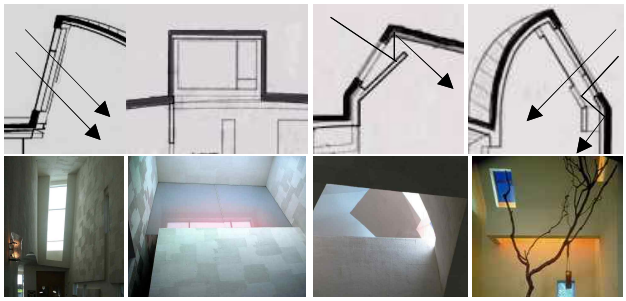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빛 병은 형태와 크기, 위치가 디자인이 진행되면서 변하였지만, 그 근본적 성격 즉 각 프로그램에 적합한 분위기를 제공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홀이 채플의 프로그램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한 것에 기인하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빛 병이 성스러운 공간과 시간을 담으면서 의식적인 연속성에서 특별한 순간의 장소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홀이 예배 행진 순서에 맞추어 남측과 동측면의 빛을 구성했다면, 도시를 향하는 북측의 빛은 '성체 채플'과 커뮤니티에 대한 미션의 확장을 의미한다.[34]

3.3. 신체감각

(1) 빛의 경험: 방법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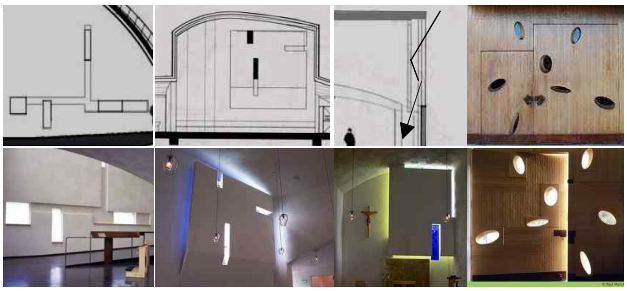
홀은 '형태, 공간, 빛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건축 현상이 삶의 체험을 고양시킬 수 있다.'[35]고 주장한다. 이때 빛은 건축의 솔리드와 보이드, 불투명성, 투명성 및 반투명성을 이끌며 그림자와 함께 건축의 지각을 주도한다. 왜냐하면 시지각은 빛과 그림자의 조건에 의해 형성[36]되고, 특히 자연광은 날씨 조건과 태양의 이동에 따라 자체 변화를 통하여 관찰자에게 다양한 현상학적 건축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 이냐시오 채플의 경우 지붕에 형성된 고창과 천창 그리고 벽면에 형성된 다양한 크기와 모습의 개구부 및 스크린 장치를 통해 빛이 내부로 유입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사되고 여과된다. 즉, 이들 개구부는 의도적으로 빛을 붙잡고 방향을 만들어내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채플 내의 다양한 공간을 각기 다른 양상의 빛으로 변환시킨다.[37]<그림 6>



<그림 6> 빛 유입장치와 효과: 좌측부터 프로세션 홀 상부(고창), 회중석 남측(고창), 성가대석(고창 + 스크린), 성체채플(고창 + 스크린)

34) http://www.stevenholl.com/project
35) Steven Holl, Interwining, Princeton, 1996, p.11
36) Steven Holl,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Question of Perception, Juani Pallasma and Alberto Gomez, A+U, 1994, p.63
37) Richard Ingersoll, Op. Cit., 2002, p.18

맑은 유리의 고창과 측창에 의해 채광되는 나텍스와 프로세션 홀은 자연광이 다양한 그림자를 연출하며[38], 채플 깊숙이 들어갈수록 빛은 다양한 스크린 장치를 통해 각 공간에 적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39] 다양한 개구부를 통해 들어온 빛은 벽의 물성을 변화시키고 관람자의 시선을 제어하면서 공간의 깊이를 더해주어 무수히 많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갖는다.<그림 7>



<그림 7> 벽면의 빛 유입장치와 효과: 프로세션홀 측면, 회중석 서측, 제단, 남측 정면입구 문

(2) 색채의 경험: 방법과 의미

스티븐 홀은 공간의 배후에 숨겨진 상태로 투사된 색채를 통해 공간을 규정하였다. 이때 투사된 색채는 주어진 날의 햇빛 강도에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 공간을 변화시킨다.[40] 이때 색채는 자연광과 인공 조명의 빛을 결합시켜 상호 연관 관계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스크린'의 역할을 한다.[41]

이러한 빛 스크린은 홀이 색채가 있는 빛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D.E. 쇼앤 컴퍼니'에서 처음 시도된 후 성 이냐시오 채플에도 적용되었다.[42] 빛 조절장치의 후면 채색부분에 반사된 빛은 주변 벽에 후광을 만들어낸다. 반면 빛 조절장치에서 외부 창문과 개구부를 통해 컬러 유리 렌즈를 통과한 빛은 채플의 벽과 바닥에 투사된다. 그 결과 성 이냐시오 채플의 빛과 색채의 사용[43]은 내부 지향적인 공간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44] 또 다른 공간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그림 8>

38) Steven Holl, Op. Cit., 1999, p.82
39) 부족한 빛은 반투명 유리 벽, 돌출 조명과 매달린 간유리 조명으로 보완한다.
40) Steven Holl, Op. Cit., 1994, p.61, 색채 경험은 사용가능한 빛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경우 불확정성이 가장 큰 특징이 된다. 표면 반사의 변화, 불투명 및 투명 색채간의 차이, 광택, 무광택 반사 및 투사된 색채의 독특한 성질은 색의 현상학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을 제시한다.
41)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pp.107-108
42) Richard Ingersoll, Op. Cit., 2002, p.19
43) 설리반 신부는 채플의 봉헌식에서 "여러분이 초월자에 대한 개인의 관계 모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 모습만으로 이러한 관계의 풍부함, 깊이 및 강도를 판단할 수 없다. 성자들의 생활은 교양이 없고, 비관습적이며, 무지한 사람들의 사례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들 삶의 중심은 자애의 빛, 찬란한 색채와 강도의 빛이 제거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빛의 도입과 색채의 사용을 적극 옹호했다. Gerald T. Cobbs, Op. Cit., 1999, p.12
44) Richard Ingersoll, Op. Cit., 2002, p.18

<그림 8> 색채의 반사: D.E. 쇼앤 컴퍼니 반사방법, 내부, 채플 성가대석(녹색 면에 적색 유리), 제단 벽면(황색 면에 청색 유리)

성수를 담는 세례반과 성유(聖油)병, 양초대로 구성된 세례대에서는 카톨릭의 주요 전례 중 하나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堅振聖事, confirmation)가 일어난다. 이곳은 다른 주요 공간과 달리 자체만의 고창과 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벽 전체에 설치된 측창을 통해 은은한 빛이 상시 들어오도록 계획하였는데, 색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에도 문양을 두지 않아 차분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그림 9 좌측사진>

성체 채플은 성찬용 빵(the Eucharistic bread)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를 위한 공간이다. 벽면을 밀랍으로 마감하여 촉각적 차이를 두었다. 자체의 고창과 천정공간을 갖고 있는데, 고창을 통해 유입된 빛은 스크린 뒷면에 반사되어 성체 채플에 오렌지 색의 반사 간접광을 제공한다. 또한 직사각형의 고정창은 홀이 직접 디자인한 교회 문양을 보여주며, 매드로나 나무에 매달린 등불은 촛불로 빛을 제공한다. 전체 채플 공간 중 상대적으로 가장 다양한 빛의 종류와 효과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기도와 묵상을 위한 성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표 5>, <그림 9 좌측에서 두 번째 사진>

고해실은 고해성사(confession)를 축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좁고 높게 구성되어 있다. 스티븐 홀은 별도의 지붕과 고창을 이곳에 설치함으로써 이 공간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남측을 향해 형성된 고창의 오렌지 색유리를 통과한 빛은 자주색 스크린벽을 거쳐 고해실 공간에 유입된다. 고창이 고해실 전체에 설치되고, 스크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색채의 효과는 크지 않고 밝은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표 5>, <그림 9 좌측에서 세 번째 사진>

미사가 집전되는 채플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제단과 회중석을 위하여 홀은 건물을 가로 지르는 사다리 꼴의 커다란 둥근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실과 달리 고창을 두지 않고, 제단과 회중석 후면의 측창으로 빛을 유입시킨다. 측창 앞에 설치된 스크린은 빛의 유입을 극도로 억제하여 상대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동시에 동반된 색사용으로 빛을 통한 극적 체험을 만들어낸다. 이는 제단의 동측창과 회중석의 서측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강도의 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애틀 지역의 특성인 변화무쌍한 날씨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45] <그림 9> 및 <그림 13>

그 결과 연중 내내 매일 매일 변화하는 신비스럽게 빛나는 내부가 연출된다. 채플에서 현상과 개념의 이중적 결합은 이러한 상보적 색채의 시각적 현상에서 잘 드러난다. 야간에는 반대로 내부 조명을 통하여 캠퍼스와 도시를 향해 색채를 내보낸다.

<그림 9> 세례대, 성체채플, 고해실, 회중석, 제단의 빛과 색채효과

<표 5> 성 이냐시오 채플의 공간과 색채 영역[46]

채플공간	반사면 색채		렌즈(유리색)	
프로세션 홀 (procession)	백색		투명	
나텍스(Narthex)	적색		녹색	
성가대석	녹색		적색	
본당 동측/ 서측	황색	청색	청색	황색
성체 채플	주황색		보라색	
고해실	보라색		주황색	
종탑/ 반사못	자연광		물	

(3) 촉각 및 기타 감각

건축경험에 있어서 감각에 대한 중요성은 팔라스마를 중심으로 계속 주장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영적 훈련(The Spiritual Exercise)'에서 성 이냐시오가 감각과 촉각의 영역을 강조했고, 성 이냐시오 채플에서는 형태보다는 재료, 오브제 등의 방법으로 나타난다.

성 이냐시오가 감각과 촉각의 영역을 강조한 것은 채플의 수제 주문 가구와 장치들에 표현된다. 알라스카 산 세다(cedar)로 만들어진 문은 태양 광선의 7개 타원을 잡기 위한 렌즈로 조각되어 있고, 끌로 다듬어진 표면은 햇빛을 붙잡고 확산시키는 나무의 재질을 드러낸다. 직접 신체와 접촉하는 청동의 문 손잡이, 세례, 설교단, 벤치형 좌석 모두는 지역 장인들에 의한 수제품이다. 내부에서 빛은 손으로 마감한 플래스터 벽을 모자이크처럼 만든다. 연마된 검은색 콘크리트 바닥은 채플에 외부 연못을 끌어 드리는 시각적 연속성으로 반사의 물과 같은 표면이 된다.[47] <그림 10>

<그림 10> 채플 재료와 질감: 외벽 채색 콘크리트, 알라스카 세다 목재의 정면 문, 내부 플러스터 벽, 흑색 콘크리트 바닥면의 질감

홀은 물을 일종의 '현상적 렌즈'로 규정하여 반사, 공

45) "시애틀 지역의 특징인 구름이 태양 앞을 지나가면, 반사된 색채의 현상적 "펄스(pulse)"가 일어난다. 이러한 반사된 색채의 주기적 파동은 숨과 같이 조용한 공간을 활기차게 만든다." Ibid., p.92

46) http://www.seattleu.edu/missionministry/chapel

47) Gerald T. Cobbs, Op. Cit., 1999, p.9

간적 역전, 굴절, 광선의 변화 등 물이 갖는 현상학적 성격을 중시하였다.[48] 채플의 남측에 사용된 반사 연못은 캠퍼스의 새로운 외부 공간인 동시에, 밤에는 빛의 반사를 통한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그림 11>

<그림 11> 물의 반사효과: 외부 반사못, 내부 성수대, 야간의 반사모습

3.4.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현상학적 특성

(1) 공간의 방향과 깊이

"공간은 변화의 속성을 지닌 유동적인 것이며, 시간과 빛 등 비물질적인 속성들은 공간에 본질적인 생명을 부여한다."[49] 평면은 직사각형의 매우 단순한 윤곽을 갖는 반면, 내부는 다양한 공간감을 보여준다. 장변의 길이가 40m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 건물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성 이냐시오 채플의 공간 방향성은 크게 장변과 단변의 2방향으로 형성되는데, 홀은 공간의 방향과 깊이를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정면 좌측입구에서 시작되는 장변 공간의 방향성은 프로세션 램프를 지나 성체 채플에 만들어진 창으로 연결된다. 이때 공간의 방향성과 깊이를 심화시키는 현상학적 장치를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천정 선의 변화이다. 높이와 형상을 달리하는 천정은 6개의 빛 병을 형상화한 지붕의 형태를 내부에 반영한 것으로서 중첩되는 천정 선의 변화로 공간의 방향성과 깊이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벽면의 변화로써 프로세션 램프, 성수대, 회중석, 성체 채플로 이어지는 벽면은 각각 높이와 폭을 달리함으로써 천정면과 함께 공간에 변화를 부여한다. 여기에 각 공간별로 특성을 갖는 빛의 유입방법과 세기는 변화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그림 12> 채플 평면과 공간의 방향성: 좌측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평면, 회중석 남측, 성수대에서 성체채플, 회중석 서측에서 제단, 프로세션 홀, 회중석 북측으로의 방향성

48) Steven Hol, Op. Cit., 1994, p.80
49) Ibid., p.63

두 번째 방향성은 채플 내 가장 큰 공간인 회중석에서 장변, 단변 양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회중석 장변의 방향성은 신도석의 배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강하지는 않다. 반면 공간의 깊이는 중첩되는 천정 면과 벽면의 단절과 연속 그리고 천창, 고창, 측창 등 다양한 빛의 유입으로 강화된다. 제단으로의 방향성은 연속된 횡렬의 신도석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좌우로 넓은 공간 특성 때문에 장변만큼의 방향성은 갖지 않는다. 대신 제단 상부에 설치된 스크린 벽과 이 벽의 외곽에서 유입되는 빛의 효과로 인하여 공간의 깊이와 시선을 이끌고 있다.

(2) 시점과 시간

박물관, 미술관과 달리 채플은 건물의 성격 상 신체의 연속적 움직임이 중요시 되는 시설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홀은 우회적인 긴 동선으로 엮어지는 연속적인 공간의 흐름보다는 중요 지점에서 다양한 시점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지각이 이루어지도록 의도했다.

입구 홀에서는 두 가지의 시점이 제공된다. 하나는 성수대를 지나 성체 채플로 이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텍스 공간의 여러 장치물이다. 성수대에서는 제단, 성가대석, 성체 채플로의 시점이 형성된다. 회중석 단부 중앙에서는 우선 제단과 제단 후면의 스크린 벽의 시점과 아울러 성가대 석과 고해실 벽면에 설치된 조각으로 시점이 형성된다. 성가대 석에서는 프로세션 램프의 벽면과 나텍스 방향의 깊게 파여진 슬릿으로 시점이 형성된다. 이는 회중석의 배치 그리고 다양한 빛 유입방향과 맞물려 특정 소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변화를 제공한다. 성체실 입구에서는 입구로의 모습과 제단 그리고 고해실로의 다양한 시점이 형성되는데, 각 시점을 가로지르는 천정 면과 다양한 개구부를 통한 빛의 효과로 인하여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채플에 유입되는 다양한 빛은 시간에 따른 공간감의 변화를 지각하도록 만든다. 나텍스와 프로세션 홀의 자연광은 그림자와 함께 방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회중석 주변의 공간에서는 색채 스크린을 거치는 동안에 빛이 떨어지는 위치와 색의 변화 정도를 경험하도록 만들며, 홈이 파여진 벽 표면은 그 모습을 계속 변화시킨다. 채플이 보여주는 시간 변화에 대하여 종교학자는 마치 성당의 전례가 사람들을 종교적 체험에 이르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평가한다.[50] <그림 13>

<그림 13> 채플 제단부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습

50) Gerald T. Cobbs, Op. Cit., 1999, p.12

이상의 분석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성 이냐시오 채플에 나타난 현상학적 건축특성

구분	내용	주요관련 사항
건축 조건의 해석	대지	도시 및 캠퍼스내 위치고려의 장소 조성, 캠퍼스 새로운 중심으로 쿼드랭글 조성, 녹지, 수공간, 건물의 단계별 전이
	프로그램	종교 시설 프로그램의 현상학적 해석: 선교 미션과 이냐시오의 영적 훈련을 해석한 디자인 개념 '서로 다른 빛의 모임' 제시
건축물의 경험	신체 감각	채플내 공간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고창, 측창 배치와 색채 스크린을 통한 빛의 경험 다양화 야간의 빛과 색채 효과 고려
		재료 물성을 통한 목재, 플러스터 벽, 바닥의 촉감 강조, 공간경험의 확장자로서 반사못의 이용, 수작업을 통한 재질 경험의 극대화 시도
	신체 움직임	높고 낮은 천정의 중첩을 통한 공간의 깊이 구현 제단, 성가대석, 성체채플 등 다양한 초점을 통한 다시점 제공
		입구, 프로세션 홀, 성수대, 회중석 등 주요 지점에서 다시점 제공을 통한 공간 경험의 다양화 시도, 빛과 그림자의 위치 변화를 통한 시간의 경험

4.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 이냐시오 채플은 '서로 다른 빛의 결합'을 통한 공간 구성이라는 지극히 현상학적인 개념에 의해 진행된 건축 작업으로서 사이트, 프로그램의 해석에서 시작하여 시각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적 체험과 다양한 시점 및 공간 변화에 이르기까지 지각적 차원을 고려한 현상학적 건축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선례를 찾기 어려운 외부 형태는 채플 각 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적합한 빛을 유입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서로 다른 빛의 모임'이라는 디자인 개념의 건축적 구현물로서 사용자의 공간체험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성 이냐시오 채플에서 빛은 색과 함께 사용자의 종교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개구부와 색채 스크린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감각의 체험을 위하여 재료의 물성을 통한 촉감을 강조하고, 수작업을 통해 이를 극대화했으며, 공간경험의 확장으로서 반사 못을 사용하였다.

넷째, 다양한 천정면의 변화를 통해 공간의 깊이를 부여하고 다양한 초점을 제공함하여 공간의 방향성을 다변화함으로써 다양한 공간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시간의 변화를 느끼도록 의도하였다.

이렇듯, 성 이냐시오 채플이 여러 측면에서 현상학적 특성을 갖게 된 이유는, 우선 건축을 통한 종교적 체험이 중시된 시설의 목적이 경험을 위주로 하는 현상학적 건축의 특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념부터 구현까지 현상학적 접근을 표방한 건축가의 강력한 건축적 의도와 이러한 시도를 적극 지지하고 수용한 건축주의 의지가 합쳐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Architectural Record, July, 1997
2. Corrodi, Michelle, Illuminating, Birkhauser, 2008
3. Cobbs, T., Gerald, The Graces of Sacred Art and Architecture: Seattle University's Chapel of St. Ignatius, Conversations on Jesuit Higher Education, Vol 14, 1998
4. Descottes, H., Architectural light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1
5. Holl, Steven, The Chapel of St. Ignatiu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6. Holl, Steven, Anchor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7. Holl, Steven, Interwi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8. Holl, Steven, Parallax,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0
9. Richard Ingersoll, Steven Holl Architect in a Cabinet of Curiosities, C3, 2002
10. Holl, Steven, Pallasma, Juhani, Perez-Gomez, Alberto, Questions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William Stout Publishers, 2006
11. Garofalo, Francesco, Steven Holl, Universe, 2003
12. Otero-Pailos, Architecture's Historical Turn: Phenomenology and the Rise of Postmoder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13. Pallasmaa, Juani, The Eyes of the Skin, Wiley, 2008
14. Pallasmaa, Juani, The Thinking Hand, Wiley, 2009
15. 길성호, 현대건축과 수용미학, 스페이스타임, 2003
16. 이종관, 공간의 현상학, 풍경 그리고 건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17. 길성호, 현대 건축가의 신체 담론에 나타난 공간성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4
18. 김영희, 스티븐 홀의 스트레토 하우스에서 베르그송의 지속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0.02
19. 김명옥, 스티븐 홀의 감성적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03
20. 안우진・손광호・고성룡, 스티븐 홀 작품에 나타난 현상학적 빛과 물의 공간작용,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1.06
21. 이미경, 현대 공간디자인에서의 현상학적 특징과 가능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1.04
22. 홍덕기・구영민,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시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5
23. http://www.seattleu.edu/missionministry/chapel

[논문접수 : 2012. 06. 28]
[1차 심사 : 2012. 07. 20]
[게재확정 : 2012. 08. 10]